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 선택
----	--	------	--	--	--	---	--	--	----------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지한 자는 외부 원인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란되어 참다운 만족을 갖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현명한 자는 정신이 거의 동요되지 않고 자신과 신과 사물을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합니다.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한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정신의 만족일 뿐입니다.



- ① 만물을 창조한 인격신이 부여한 계율을 실천해야 한다.
- ② 이성을 온전히 발휘하여 자연의 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
- ③ 신적 필연성을 인식하여 자기 보존의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 ④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⑤ 지복을 누리기 위해 유일한 실체로서의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2.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색(色)이 무상(無常)함을 관찰[觀]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곧 싫어하여 떠나려 함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나면 기쁨과 탐욕이 없어지고, 기쁨과 탐욕이 없어지면 이를 마음의 해탈이라고 한다.

을: 귀는 듣기만 할 뿐이며 마음은 느낌을 받아들일 뿐이지만, 기(氣)로 듣는 것은 텅 빈[虛] 채로 무엇이든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도(道)는 텅 빈 곳에 모이게 마련이다. 이처럼 텅 비게 하는 것이 마음의 재계[心齋]이다.

<보 기>

ㄱ. 갑: 업(業)을 쌓아 윤회를 거듭하면 해탈할 수 있다.  
 ㄴ. 갑: 모든 현상과 사물은 무상하므로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ㄷ. 을: 도의 관점에서 보면 시비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이다.  
 ㄹ. 갑과 을: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 수양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용기는 비겁함의 반대이다. 무서운 것과 무섭지 않은 것에 대한 지혜가 바로 용기이다. 참되게 살려는 자는 덕이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을: 용기는 두려움과 대담함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관련된 중용이다. 중용을 실천하는 것은 고귀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우므로 그것을 선택하고 견뎌낸다.

- ① 갑: 덕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 ② 갑: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 ③ 을: 실천적 지혜를 지니지 않아도 용기의 덕을 발휘할 수 있다.
- ④ 을: 품성적 덕은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얻을 수 있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무엇이든 나쁜 행동인 줄 알면 그것을 절대 행하지 않는다.

4. 현대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유의 조건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주인이 간섭하지 않는 한 노예는 불간섭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을: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활동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자유란 그저 불가침의 영역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타인 때문에 그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강제당하거나 노예 상태에 처한 것이라고 말한다.

- ① 갑: 시민의 진정한 자유는 간섭의 부재만으로도 실현된다.
- ② 갑: 시민의 권리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 ③ 을: '~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를 향한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 ④ 을: 선한 의도를 지닌 간섭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⑤ 갑과 을: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필수 조건이다.

5.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하늘은 사람에게 선(善)을 행할 수도 악(惡)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 의지[權衡]를 주어, 선악을 하려는 방향이 고정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공(公)이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죄(罪)가 된다. 성(性)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성을 거슬러 악을 저지른다면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 ① 하늘의 이치[理]가 내재한 인간의 본성은 순선하다.
- ② 인간과 동물은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지닌다.
- ③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확충한 후에 인(仁)이 형성된다.
- ④ 선행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 ⑤ 인간의 자주지권은 사단(四端)에 기초하여 후천적으로 생겨난다.

6.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본래의 성품이 비록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달았어도[頓悟],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習氣)는 한꺼번에 없애기 어렵다.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점차 익힘으로써[漸修] 공덕을 이루어야 한다.  
 을: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니고, 진여와 생멸은 서로 다르지 않으니 '하나[-]'라고 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모든 진리가 가장 참되고 헛되지 않아, 스스로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心]'이라고 한다.

- ① 갑: 마음의 본체인 선정과 마음의 작용인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
- ② 갑: 고정된 실체를 깨닫기 위해 돈오 이후에도 나쁜 습기를 없애야 한다.
- ③ 을: 일심에서 보면 생겨남과 사라짐은 상호 이원적으로 대립된다.
- ④ 을: 부처와 중생은 본래 마음이 다르지만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마음 밖의 진리를 통해서만 이상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쾌락이 있는 곳에서는 육체나 마음의 고통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쾌락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잘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을: 쾌락과 고통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줄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준다. 쾌락의 추구하고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목적이며 쾌락과 고통의 가치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 ① 갑: 더 좋은 쾌락을 보장한다면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
- ② 갑: 자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
- ③ 을: 두 쾌락의 양이 같다면 질적인 면에서 쾌락 간의 차이는 없다.
- ④ 을: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증진을 입법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쾌락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

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이성은 신과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본성이다. 전체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본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한 것이다.  
 을: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통해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지니게 된다. 신은 우리에게 규정한 목적들로 향하게 하고, 선을 추구하게 한다.

- ① 갑: 자연에 따르는 삶과 신의 섭리에 따르는 삶은 상이하다.
- ② 갑: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
- ③ 을: 자연법에 일치하는 행위만으로도 신의 은총이 보장된다.
- ④ 을: 종교적 덕을 실천하여 현세에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이성적 능력으로 신에 의한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

9.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마음은 성(性)과 정(情)을 주재한다. 인(仁)으로 사랑하고 의(義)로 미워하며, 예(禮)로 사양하고 지(智)로 아는 것은 마음이다. 성은 마음의 이치[理]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을: 마음이 곧 이치이다. 이 이치를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데 드러낸 것이 효이고, 임금을 섬기는 데 드러낸 것이 충(忠)이며, 벗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드러낸 것이 신(信)과 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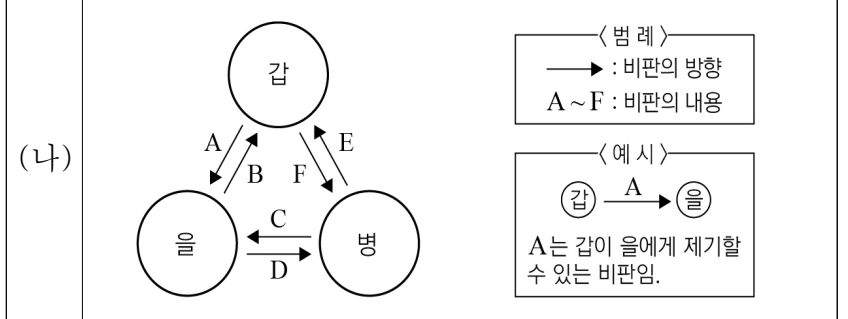
— <보 기> —

ㄱ. 갑: 마음과 이치는 하나이므로 둘로 나눌 수 없다.  
 ㄴ. 갑: 의(義)에 관한 앎[知]과 실천[行]은 병행해야 한다.  
 ㄷ. 을: 양지를 발휘하여 마음의 바르지 못한 의념[意]을 바로 잡아야 한다.  
 ㄹ. 갑과 을: 사물과 달리 사람에게에는 천리가 내재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계속 행사하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을: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선택된 권력이다. 그러므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없다.  
 병: 주권은 일반 의지에 의해 성립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다. 대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 ① A: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갖고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선택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함을 간과한다.
- ③ C, E: 주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 ④ D: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에 대한 집행권을 지녀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사회 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음을 간과한다.

11.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죽음, 고통 등과 같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며 좌절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참된 실존으로 비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의식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되며 자유로운 선택 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로우며, 바로 그 자유 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상해야 합니다.



- ① 갑: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을 수 있다.
- ② 갑: 인간은 합리적 사유를 통해 좌절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 ③ 을: 인간은 주어진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
- ④ 을: 인간은 자유 자체를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초월자에게 귀의하여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1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무력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것을 패도(霸道)라 하고, 도덕으로 인을 실행하는 것을 왕도(王道)라 한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서 복종하는 것이다.  
 을: 성(性)을 따르면 사회가 혼란해지므로 선왕(先王)이 노력하여 예의(禮義)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가 예의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직(社稷)을 잃게 된다.

- ① 갑: 소인과 달리 군자는 선천적으로 덕(德)을 갖추고 있다.
- ② 갑: 백성과 사직보다 임금을 귀하게 여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
- ③ 을: 예법에 근거하여 인간의 타고난 욕망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 ④ 을: 군자는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에 귀하게 여겨진다.
- ⑤ 갑과 을: 통치자는 하늘이 부여한 도(道)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덕에 대한 호감이나 악덕에 대한 반감을 모두 없애거나, 사람들이 이러한 구별에 무관심하게 된다면 도덕이 더는 실천적 학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도덕을 활동적 원리로 만들고, 덕은 행복이 되는 것으로 악덕은 불행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덕과 악덕의 구별은 자연히 인간 전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모종의 느낌에 의존한다.

- ① 덕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다.
- ② 덕과 악덕은 인간의 마음에서 독립하여 외부에 실재한다.
- ③ 행위뿐만 아니라 품성에서도 도덕적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 ④ 모든 종류의 쾌락과 고통의 감정은 도덕적 감정이 될 수 있다.
- ⑤ 행위자 자신에게 유용하지 않다면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1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공론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자격이 있고, 개인적인 바람도 표현할 수 있다. 정책 결정은 시민들의 공적 대화와 토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인민의 표를 얻는 경쟁적 투쟁의 수단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을 획득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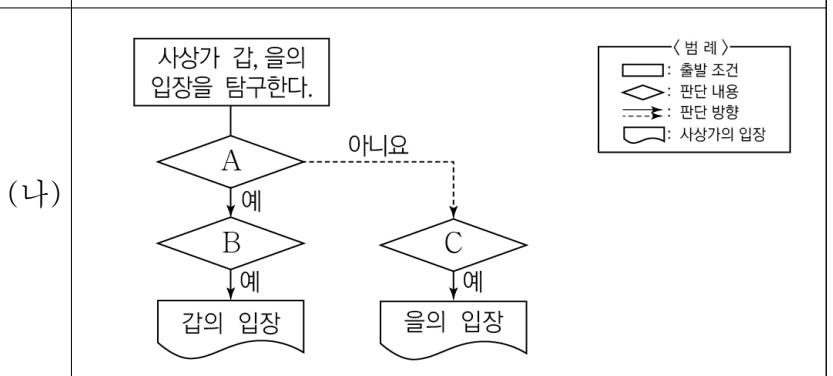
<보 기>

- ㄱ. 갑: 정책의 정당성은 민주적 심의 절차에 의해 확보된다.
- ㄴ. 을: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다.
- ㄷ. 을: 정치 엘리트들의 경쟁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ㄹ. 갑과 을: 국가 정책은 시민들의 합리적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한 것이며,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하는 것이다.  
 을: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성(性)에 본연과 기질의 구분이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은 성에서 발하고 칠정은 외물이 사람의 형기에 접촉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는 것이다.



<보 기>

- ㄱ. A: 사단과 칠정은 같은 연원에서 유래하는가?
- ㄴ. B: 본연지성을 발현하기 위해 기질을 교정해야 하는가?
- ㄷ. B: 이(理)는 기(氣)의 근원이므로 현실에서 기와 별개로 존재하는가?
- ㄹ. C: 사양하는 마음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감정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서양의 문물로 인한 폐해가 심하니 모두 찾아내어 태워야 한다. 이단을 물리치는 데 정학(正學)을 밝히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 정학을 밝히는 것은 천리와 인욕을 구별하는 것이다.  
 을: 우리의 도(道)를 행하는 것은 정덕(正德)을 위한 것이고, 저들의 기(器)를 본받는 것은 이용후생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병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 <보 기> —  
 가. 갑: 정신과 물질의 개혁을 이루어 외세에 대응해야 한다.  
 나. 을: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다. 을: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라. 갑과 을: 유교의 인륜을 지켜서 나라의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덕은 영혼의 건강, 아름다움, 좋은 상태인 반면 악덕은 영혼의 질병, 추함, 허약함이다. 몸이 망가지면 온갖 음식과 부와 권력이 소용없듯이 영혼이 타락하면 사는 보람이 없다.  
 ○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세 부분 각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들 셋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것에 대한 앎을 그 자신 속에 지니고 있다.

- ① 영혼이 추구하는 정의와 국가의 정의는 실현 방식이 다르다.  
 ② 모든 사람은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직접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  
 ③ 좋은 것들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은 이성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④ 욕구와 관련된 부분의 덕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요구된다.  
 ⑤ 인간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1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성인은 무위(無爲)하니 백성이 저절로 감화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통치는 백성의 마음을 비워주되 그들의 배를 채워 주어, 항상 백성을 무지(無知)하고 욕망이 없는[無欲] 상태에 있도록 한다.  
 을: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인(仁)의 도가 생긴다. 효(孝)와 제(悌)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니, 인을 행하는 것은 효제로부터 시작된다.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고, 제는 형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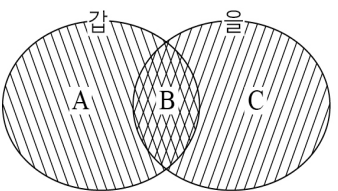
- ① 갑: 만물의 근원인 도(道)가 상실되어 인의의 덕이 생겨난다.  
 ② 갑: 사회 제도와 규범을 확립해야 타고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을: 통치자는 명분[名]을 버리고 예악(禮樂)을 세워야 한다.  
 ④ 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없이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⑤ 갑과 을: 사회 질서를 위해 무지와 무욕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1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행복 추구의 원리에 따르면,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향유할 쾌락을 선택할 때 양과 질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을: 행복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명령은 가언적이다. 다른 의도를 조건으로 두지 않고 어떤 처신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명령은 정언적이다. 우리가 수립하는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이어야 한다.

- ① 갑: 행위의 결과적 유용성은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없다.  
 ② 갑: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아도 희생 그 자체는 선이 될 수 있다.  
 ③ 을: 언제나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자명한 도덕 법칙은 없다.  
 ④ 을: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는 자율적 행위가 아니다.  
 ⑤ 갑과 을: 행복 추구의 원리는 개인의 행위 준칙이 될 수 있다.

2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사회주의의 약속은 실제로는 노예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유주의는 경쟁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강제적인 간섭이 없어도 우리의 행위가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간주한다.                  을: 자유롭게 방임된 시장 경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후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위축된 기업가의 투자 의욕과 민간의 부족한 유효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p>
(나)	 <p style="text-align: right;">&lt;범례&gt;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① A: 정부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② A: 정부는 계획 경제를 도입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③ B: 정부는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④ B: 정부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⑤ C: 정부는 불황 극복을 위해 시장에 대한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